

2018. 02.
Vol.39



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¹⁾

임희진 선임연구위원
문호영 부연구위원

개요

- 조사목적** ▶ 청소년의 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근거 중심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,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, 청소년활동 만족도, 청소년활동 참여형태, 청소년활동 참여경로, 청소년활동 장애요인,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「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」를 실시하였음.
- 조사대상** ▶ 전국 초등학교 4~6학년, 중학교 1~3학년, 고등학교 1~3학년에 재학 중인 8,773명의 청소년
▶ 남자 4,563명(52.0%), 여자 4,210명(48.0%), 초등학생 2,535명(28.9%), 중학생 2,832명(32.3%), 고등학생 3,406명(38.8%)
- 조사방법** ▶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
- 조사기간** ▶ 2017년 5월 ~ 7월

1) 본 블루노트 통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도 연구과제인 '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' 보고서의 일부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.

1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

■ 2017년도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은 '건강·보건활동'이 92.7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- 다음으로 '문화예술활동'(82.6%), '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'(69.5%), '모험개척활동'(59.7%), '과학정보활동'(59.1%), '봉사활동'(59.0%), '환경보존활동'(46.5%), '자기(인성)계발활동'(42.7%), '교류활동'(33.6%)의 순으로 조사됨.
-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, '건강·보건활동'과 '문화예술활동'의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1~2위의 높은 순위로 나타남. 반면, '교류활동'의 참여율은 매년 가장 낮았으며, '환경보존활동'과 '자기(인성)계발활동'의 참여율은 대체로 50%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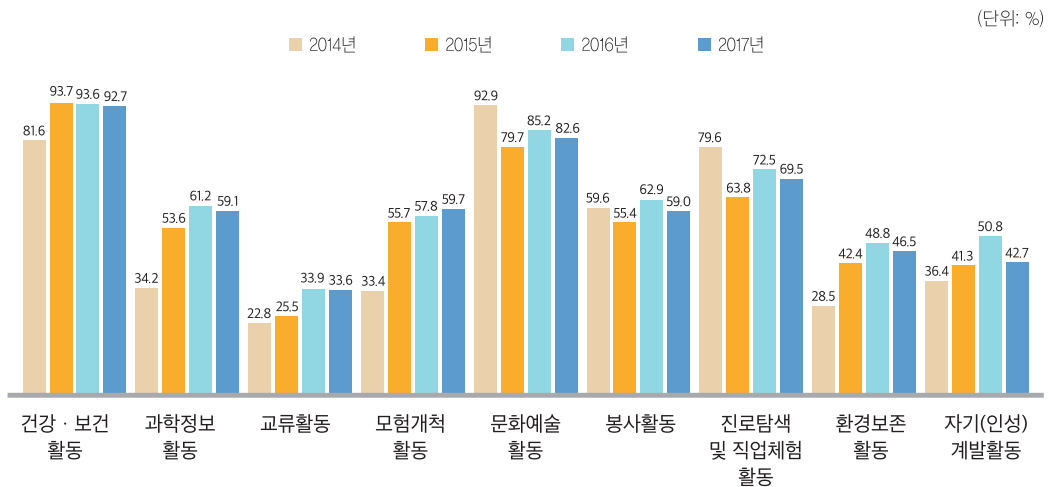


그림 1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(연도별 추이)

2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

■ 향후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은 ‘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’(25.0%)으로 조사됨.

- 이어서 ‘문화예술활동’(19.0%), ‘모험개척활동’(17.7%), ‘과학정보활동’(10.5%), ‘건강·보건활동’(9.3%), ‘청소년참여활동’(5.8%), ‘봉사활동’(4.8%), ‘자기(인성)계발활동’(3.5%), ‘교류활동’(2.8%), ‘환경보존활동’(1.5%)의 순으로 확인됨.
- 2015년도, 2016년도 조사에서는 ‘문화예술활동’, ‘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’ 등의 순으로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지만, 2017년도에는 ‘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’이 1순위로 나타남. 이러한 변화는 청년 실업난, 자유학기제 등 교육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최근 청소년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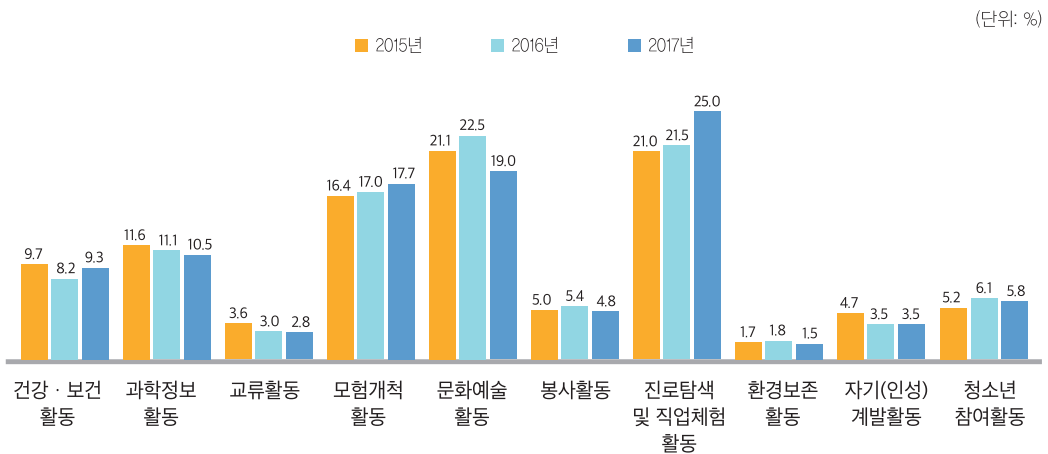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—1순위(연도별 추이)

- 남자 청소년의 경우 ‘모험개척활동’을, 여자 청소년의 경우 ‘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’을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으로 응답하는 등 성별에 따라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활동에서 차이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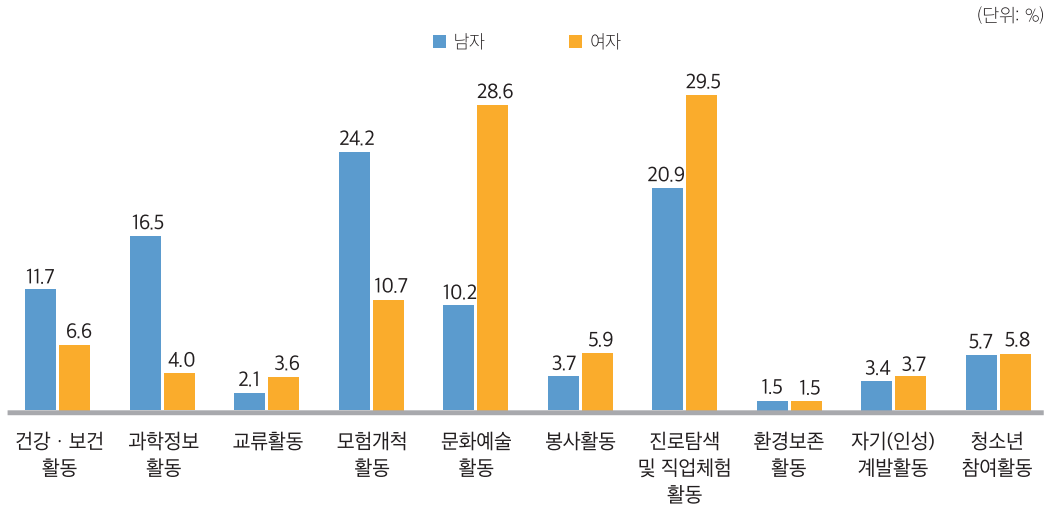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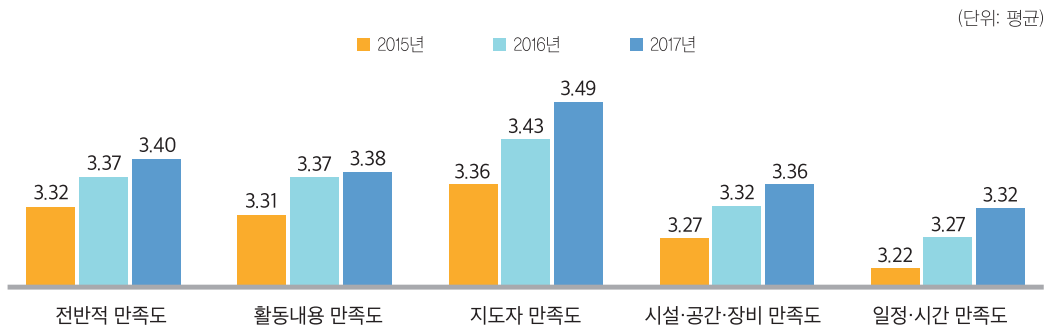


그림 3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-1순위(성별)

3 청소년활동 만족도

■ 청소년활동에 대한 ‘전반적 만족도’는 평균 3.40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구체적인 내용별로 살펴보면, ‘지도자 만족도’가 평균 3.4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, 이어서 ‘활동내용 만족도’(M=3.38), ‘시설·공간·장비 만족도’(M=3.36), ‘일정·시간 만족도’(M=3.32)의 순으로 확인됨. 이는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한 정도임.



* 주: 전혀 그렇지 않다(1점), 그렇지 않은 편이다(2점), 보통이다(3점), 그런 편이다(4점), 매우 그렇다(5점)

그림 4 청소년활동 만족도(연도별 추이)

4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및 참여경로

■ 청소년활동에 주로 어떤 형태로 참여하였는지 살펴본 결과, ‘학교에서 단체로 참여’했다는 응답이 2015년도(51.0%), 2016년도(46.0%)에 이어 2017년도(51.7%) 조사에서도 가장 많았음.

– 이어서 ‘교내 동아리활동으로 참여’(15.2%), ‘개인적으로 참여’(11.3%), ‘가족과 함께 참여’(8.8%) 등의 순으로 확인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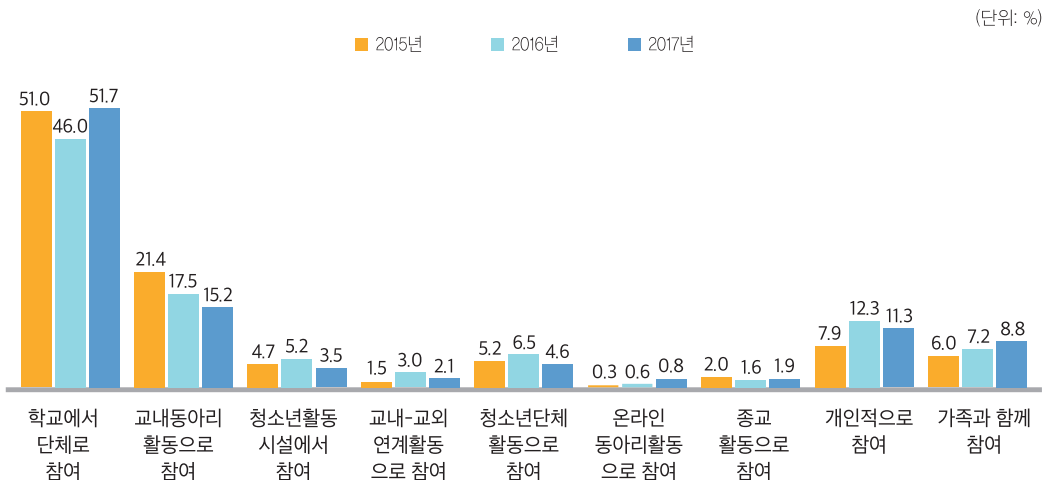


그림 5 청소년활동 참여형태(연도별 추이)

■ 청소년활동 참여경로는 ‘학교 선생님의 권유로’ 참여했다는 응답(35.8%)이 가장 많았으며, 연도별 추이에서도 1순위로 나타남.

– 다음으로 ‘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’(21.6%), ‘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’(12.1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– 청소년활동 참여에 학교의 비중이 큰 만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청소년관련시설 간의 보다 다양한 연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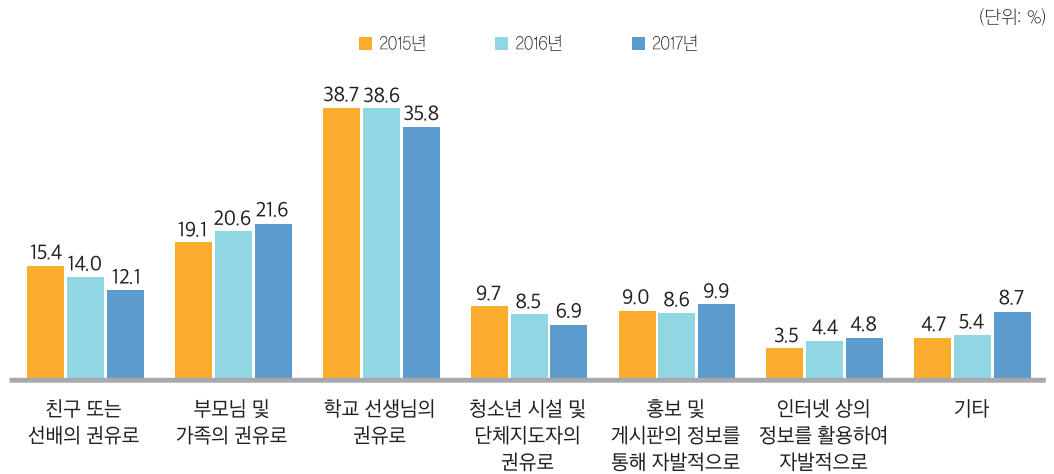


그림 6 청소년활동 참여경로(연도별 추이)

5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및 활성화요인

-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방해가 되었던 요인으로 전체 청소년 중 약 1/3 정도(31.2%)가 '참여할 시간이 없어서'라고 응답함.
 - 이러한 경향은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추이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시간부족이 청소년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음.
 - 이어서 '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'(17.0%), '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'(11.6%), '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'(10.7%) 등의 순으로 확인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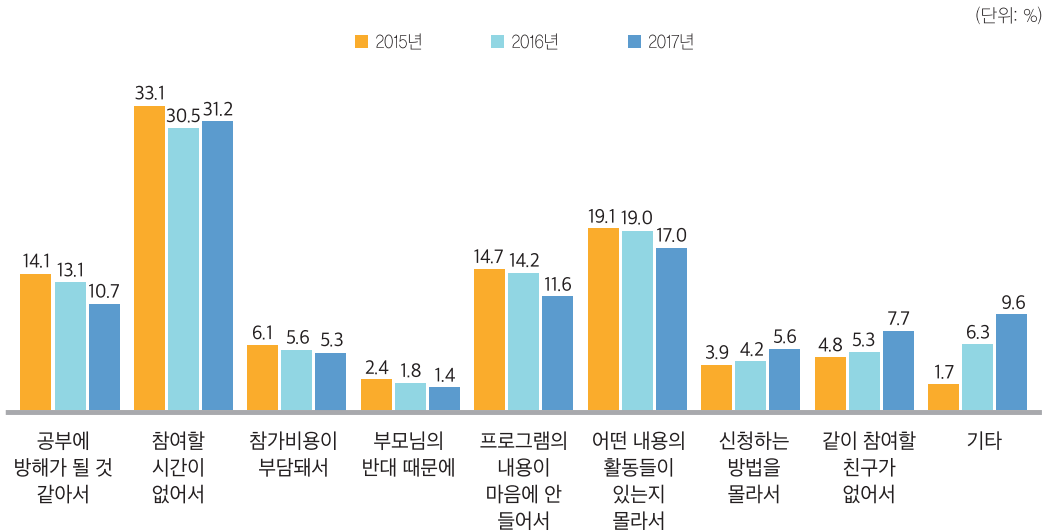


그림 7 청소년활동 장애요인(연도별 추이)

■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‘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’(26.3%)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.

- 이어서 ‘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’(25.5%)를 높은 비율로 선택하며, 청소년활동 시간 확보와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구성을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중요 요인으로 평가함.
- 다음으로 ‘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’(13.8%), ‘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’(11.4%), ‘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’(9.6%)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함.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조사도 유사한 순위를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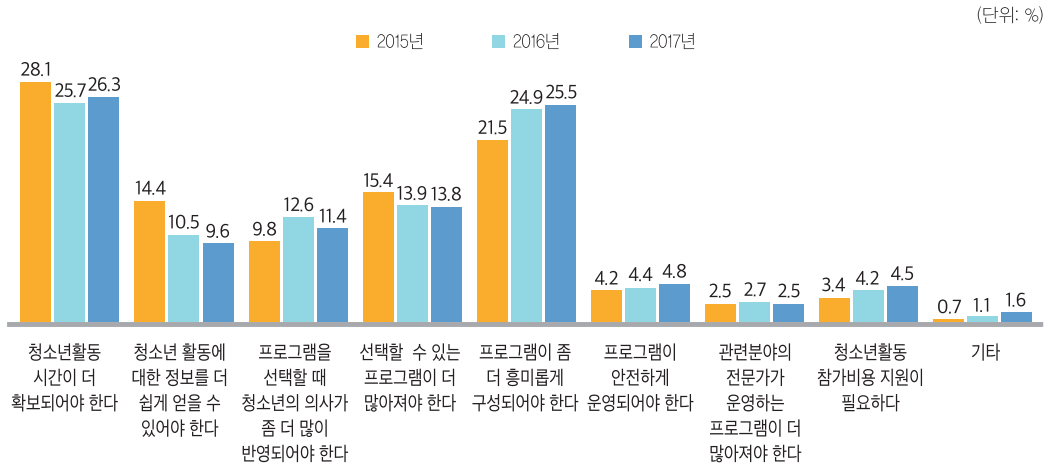


그림 8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(연도별 추이)

- 한편, 청소년 10명 중 6명은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'3시간 이하'(61.1%)인 것으로 확인됨.
- 이어서 '3시간 초과~6시간 이하'는 30.2%이고, '6시간 초과'는 8.6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, 청소년들의 평일 여가시간이 부족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음.
 - 또한, 휴일과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'3시간 이하'로 응답한 청소년이 12.3%, 9.8%로 나타나, 휴일과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1명 정도의 청소년은 3시간 이하의 부족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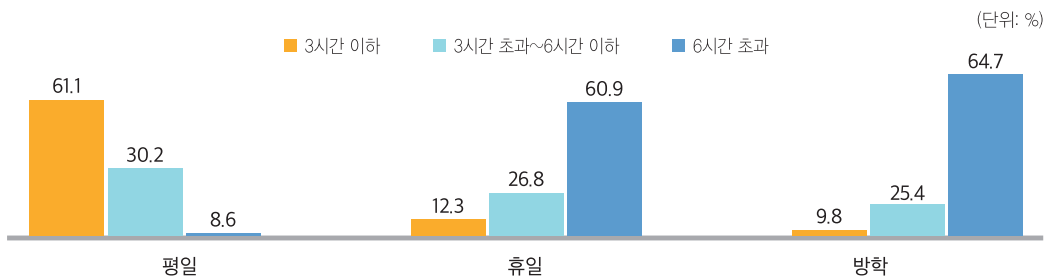


그림 9 평일, 휴일, 방학 중 하루 평균 청소년 여가시간